

小兒失血에 關한 文獻的 考察

俞太燮* · 金德坤** · 丁奎萬**

緒 論

小兒의 여러가지 疾患에 있어서 失血은 하나의 重要한 症候인데 일반적으로 陽熱過盛하여 傷陰而血受逼迫함으로써 脈中에서 正常的인 運行을 하지 못하고 妄行함으로써 外溢하는 현상이다.¹⁾

外因으로는 外感六淫의 영향으로 나타날수 있고 內因으로는 七情內傷及 感染疾患이 있을때 나타날수 있으며 小兒가 陰虛火旺體質인 경우에는 失血이 더욱 頻發함을 볼 수 있다.

失血을 分類해보면 血이 어떤 原因으로해서 人體上部之口鼻로 出하면 吐血·衄血이 되고 二便을 통해 排出되면 便血·溺血(혹은 尿血)이 된다.

小兒에 있어 失血은 初期에 治療하지 않으면 危重한 상황까지 갈수있는 疾患인데 小兒은 生理的으로 陽有餘 陰不足의 少陽之氣의 상태에 있고 臟腑가 脆弱하며 易虛·易實·易寒·易熱할 수 있으므로 治療에 慎重을 기해야 한다.

일반적인 治療原則은 正邪의 盛衰와 寒熱及 體質陰陽의 多少를 審察하여 세우는데 清熱을 爲主로 하고 情況에 따라 破血逐瘀·虛損調理·滋陰降火·補氣攝血등을 잘 遠用해야 한다.²⁾

따라서 失血에 關한 聖賢들의 諸文獻을 考察하여 疾病의 實體를 파악하고 적절한 治療對策을 세우는데 一助를 하고자 한다.

本 論

무릇 失血은 陽盛陰乘한즉 血爲熱迫하게 되어 不能安於脈中함으로써 犯於氣分하여 妄行不能歸入經脈하는 現象이다. 또 經에 이르기를 陽絡

傷則血外溢하는데 血從上焦出하면 衄血·嘔血이 되고 陰絡傷則血內溢하는데 血從下焦出하면 溺血·便血이 된다고 하였다.

失血은 대개 衄血·吐血·便血·溺血의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衄血은 鼻竅之內로 出血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小兒熱氣盛者 熱乘於血 血隨氣發 溢於鼻者 謂之鼻衄^{5,11,12)}

·傷寒先客皮膚 搏於氣而成熱 熱乘於血 血得熱則流產 發從鼻出者爲衄也.^{5,10,12)}

·凡小兒體本挾熱 舍於經絡 血脈揚溢則爲鼻衄也.^{10,14)}

吐血은 口竅之內로 出血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小兒吐血者 是有熱氣盛而血虛 熱乘於血 血性得熱則流產妄行 氣逆則血隨氣上 故令吐血也^{5,11,12)}

·夫小兒陽氣盛壯上焦有熱 伏於心肝二臟播流 血脈 血得熱則妄行下入胃中 胃受之則脹滿與氣 俱上衝擊 故令吐血也^{10,14)}

·勞傷·勞傷 俱令吐血也¹¹⁾

便血은 肛門으로 出血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夫小兒大便血者 爲主主血脈 心臟有熱 流產妄行 不依常道 其血流滲於大腸者故令大便血出也^{5,12)}

·熱傷陰絡病便血 藏毒血黯腸風紅

·恣食肥甘 小兒恣食肥甘致生內熱 傷陰絡而便血 是爲便血病¹¹⁾

溺血은 尿道口로 出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小兒心臟有熱 熱乘於血 血滲於小腸則尿血

* 서울·효자한의원장, 慶熙大學校 大醫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也.^{5,10,11,12)}

· 瀉血多緣精虧病尿血分出莖.^{1,7)}

以上으로 病因病理를 살펴보고 이제는 治療的인 面에 대해 알아보자.

治法에 있어서는 先明虛實 審得病源하여 隨經施治하도록 하는데 清熱·虛損調理·破血逐瘀를 情況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¹⁾

먼저 衄血의 治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傷寒失汗 無汗用麻黃湯 有汗桂枝湯 內熱用犀角地黃湯 熱盛用四物三黃瀉心湯.^{1,7,11)}

· 治小兒傷寒鼻衄 身熱頭痛嘔逆 麥門冬散方. 煩熱頭痛 竹茹散方.¹²⁾

· 治小兒鼻衄或唾血 升麻散方 治小兒鼻衄不止 生地黃煎方.¹²⁾

· 鼻衄方生萊菔汁.⁹⁾

· 小兒衄血中 有消化器症狀 兒科止衄湯.

吐血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다.²⁾

· 血熱妄行用犀角地黃湯 勞傷用桃仁承氣湯. 勞傷用雞蘇散·救肺散.^{1,7,11)}

· 吐血咯血用蒲黃散 吐血衄血用生地黃汁.⁹⁾

· 治小兒四五歲以上 非時吐血 犀角散方, 治小兒吐血不止 蒲黃散方, 治小兒吐血 心躁煩悶 茜根散方.¹²⁾

便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便血腸風藏毒用皂角大黃湯, 大下血後熱盛微痛用槐花散, 淫盛不痛用平胃地榆湯, 便血日久氣血衰弱用升陽和血湯 人蔘養營湯.^{1,11)}

· 內熱盛也用犀角地黃湯·抱龍丸·小柴胡湯加生地黃主之, 竊謂前證著寒熱作渴小柴胡湯加生地黃, 發熱體倦用五味異功散加當歸, 口乾作渴用 人蔘白朮散.⁸⁾

· 便血用生地黃汁入密少許, 糞前見血者四君加黃連制吳茱萸黃蘗後見血者四君加吳茱萸制黃連⁹⁾

· 治小兒大便出血 體熱黃瘦 不欲飲食 羚羊角散方, 腹痛黃瘦 槐花散方, 大便出血 久不止 面色

萎黃 不欲飲食 卷柏圓方.¹²⁾ 瀉血에 對해선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瀉血多緣精虧病 尿血分出莖 或疹牛膝四物湯 調治 急宜煎服效從容.^{1,7)}

· 瀉血用 牛膝四物湯.¹¹⁾

· 治小兒尿血 水道中澀痛 阿膠散方.¹²⁾

한편으로는 失血을 하나의 커다란 證狀으로 관찰하여 治療하기도 했는데 活幼心書에서는 實則小柴胡湯加生地黃·絲茅根 或苦參亦好並用水蘇圓·三黃圓間服. 虛則理中湯及人蔘芎歸湯皆可服. 赤水玄珠에서는 諸失血 夫血熱則妄行 始終用犀角地黃湯加芩連梔子白芍 등으로 서술하였다.

以上으로 東洋醫學的인 側面에서 觀察하여 보았고 西洋醫學的으로는 出血이란 모세혈관·혈소관 또는 혈장의 응고인자의 正常機能에 障礙가 있을때 일어나게 되며 더 흔하게는 2차적으로 損傷되거나 결합이 있어서 오는수도 있다.³⁾ 따라서 대개 出血性疾患이 있거나 出血을 主證狀으로 하는 外科의疾患들이 있을 경우 失血이 발생할 수 있다. 出血性疾患을 대략적으로 分類해보면 先天性·後天性血管障礙가 있을때, 血小板減少證·血小板機能異常 등의 血小板障礙가 있을때, 그리고 先天性·後天性血液凝固因子缺乏證 등의 血液凝固障礙가 있을때 出血이 보이며 기타 外科의疾患이 있을때 出血이 있을수 있는데 그 疾患에는 年少期の 輕微性·염증성용종, 肛門裂, 腸중첩증, 胃十二支腸出血及消化性潰瘍, 食道靜脈瘤出血, Meckel 계실 및 문체점, 기타 腸중복증·血管腫·動靜脈奇型등이 있다.³⁾

考 察

小兒의 失血은 意思의 傳達이 용이하지 못한 小兒들에 發生한다는데서 患者의 家族이나 醫師들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必要한 疾患이라 할수 있다.

原因을 살펴보면 熱이 陽絡을 傷하게 함으로 또는 勞傷·勞傷으로도 失血에 이르게할 수 있다. 熱盛하게 할수 있는 要因들로는 外感六淫의 侵犯, 七情傷, 多恣食肥甘而灸燻熱物等이 있으며 陰虛陽盛한 體質이나 胎熱이 있었던 경우라면 失血이 發生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既往歴이나 體質의 特性을 考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衄血은 傷寒失汗 熱鬱於營하거나 內熱壅盛하여 發生하며 기타 習貫의으로 코를 후빈다든지 하여 鼻點膜을 자극함으로써 出血될 수 있다.

吐血은 內熱壅盛하거나 勞傷·勞傷으로 發生하며 食道를 포함한 上部胃腸管에 出血性病變이 있을때도 나타난다.

便血은 恣食肥甘而生熱하여 陰絡을 損傷시켜 發生하며 두개의 類型으로 나뉜다. 하나는 臟毒으로 血色이 黯紅하고 混濁하며 肛門이 腫痛하고 先糞便而後出血하는 것으로 遠血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腸風으로 血色이 鮮明하고 맑으며 腹中不痛하고 先出血而後排便하는 것으로 近血이라고도 한다. 기타 便秘 또는 肛門裂傷이 있을때 便血이 올 수 있고 下部胃腸管에 出血性病變이 있을때도 올수 있으며 出血이 微微한 경우에는 潛血반응(Occult Blood)으로 나타날 수 있다. 潛血反應이 오래 계속될시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細審한 注意가 필요하다.

溺血은 心熱이 小腸에 傳移되거나 下焦에 熱이 聚結하므로 發生하는데 현미경적尿血이 오래 지속될시 注意가 必要하다.

以上에서의 失血을 治療함에 있어서는 먼저 虛實·寒熱을 명확히 구분하고 病源을 잘 찾아서 隨經施治하도록 하는데 情況을 살펴서 清熱涼血·發汗透表·營衛調和·破血逐瘀·虛損調理를 한다. 治療를 함에 있어서 또는 治療를 해

도 好轉이 되지않거나 계속적인 出血이 있을시 는 血管障礙·血小板障礙·血液凝固障礙疾患이 있을수도 있으니 必要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 한편으로는 生理的 特徵과 個體特性을 감안하여 治療原則을 세워야 하는데 小兒는 한창 成長中이라서 少陽氣가 많은 陽有餘陰不足의 生理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陰虛의 證狀들이 쉽게 나타날수 있고 失血의 疾患들이 頻發할수 있으므로 治療의인 面에 있어서도 補陰을 考慮하도록 한다.

結 論

小兒의 失血은 陽熱過盛하면 陰을 傷하여 血受熱之逼迫하여 脈中에서 血이 正常的인 循行을 하지 못하고 妄行하므로 外溢하는 현상인데 原因으로는 內熱壅盛, 勞傷·勞傷으로 인한것 등으로 말할 수 있다. 治療는 清熱·破血逐瘀·虛損調理를 情況에 맞게 선택해서 실시한다.

衄血은 傷寒失汗而熱鬱於營, 內熱壅盛해서 생기며 身熱無汗이면 發汗透表하는 麻黃湯, 身熱有汗이면 營衛調和하는 桂枝湯, 內熱壅盛이면 犀角地黃湯 四物三黃瀉心湯을 用한다.

吐血은 內熱壅盛·勞傷及勞傷으로 생기며, 內熱盛에는 犀角地黃湯 勞傷에는 先用桃仁承氣湯(破血逐瘀) 後用四物湯(和血) 勞傷에는 雞蘇散·救肺散을 用한다.

便血은 恣食肥甘하여 內熱이 發生하고 陰絡을 傷하여 發하는데 臟毒에는 皂角大黃湯·槐花散·平胃地榆湯을, 腸風에는 升陽和血湯·人蔘養榮湯을 用한다.

溺血은 下焦에 熱이 聚結하여 發生하며 牛膝四物湯을 用한다.

參 考 文 獻

1. 丁奎萬: 東醫小兒科學·서울·杏林出版. 1985,

- pp.268 ~ 272.
2. 慶熙醫院韓方病院：韓方製劑解設集，서울 慶熙센터，p.254.
 3. 洪彰義：小兒科學，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1988. pp.414 ~ 417. pp.525 ~ 527.
 4. 龔廷賢：壽世保元，台北，旋風出版社。p.594.
 5.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國立中國醫葯研究所出版，卷45.— p.15，卷47.— p.5，卷48.— p.11，卷49.— pp.9 ~ 10.
 6. 孫一奎：赤水玄珠，中國醫學大系，卷34，서울，驪江出版社，1987，p.927.
 7. 吳謙：醫宗金鑑·第三分冊，幼科雜病心法要決，北京，人民衛生出版社，pp.153 ~ 158.
 8. 王肯堂：證治準繩，台北，新文豐出版公社，幼科 pp.399 ~ 402.
 9. 危亦林：世醫得效方，中國醫學大系 卷14，서울，驪江出版社，1987. pp.746 - 409 ~ 746 - 410.
 10. 周定王：普濟方，中國醫學大系，卷28，서울 驪江出版社，1987，p.760 - 151，p.760 - 165，pp.760 - 169 ~ 170 p.760 - 173.
 11. 陸青節：萬病醫葯顧問，台北，大中國圖書公社，pp.136 ~ 141.
 12. 太宗命：太平聖惠方，서울 翰成社，1980，pp.2654 ~ 2655，pp.2862 ~ 2863. p.2960，pp.2962 ~ 2963.
 13. 會世榮：活幼心書，台北，大東書局，p.16. pp.58 ~ 59.
 14. 吳錫璜：聖濟總錄，上海棋盤街文瑞樓印行，卷179，pp.20 ~ 21.